

# 김밥·햄버거 등 외식품목, 33개월째 가격 상승

39개 주요품목 지난해비 5% ↑  
통계청, 2월 외식물가 3.8% 올라  
반면, 가공식품 물가 오름세 둔화  
소금·당면 등 일부품목 크게 뛰어

지난달 김밥과 치킨, 햄버거 등 외식 물가를 좌우하는 39개 주요 품목의 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 넘게 오른 품목이 수도룩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외식 물가는 3.8%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률(3.1%)을 넘어섰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2022년 9월(9.0%) 정점에 달한 후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을 33개월 연속으로 웃돌았다.

외식 물가를 구성하는 39개 품목의 가격도 전년동월에 비해 일제히 치솟았다. 특히 햄버거(8.2%)와 김밥(6.4%), 비빔밥(6.1%), 오리고기(6.0%), 떡볶이(5.7%), 치킨(5.4%), 맥주(5.2%) 등 27개 품목의 상승률은 전체 평균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물가 오름세는 둔화했지만 일부 품목은 크게 뛰었다. 설탕이 지난



지난 12일 서울지역의 한 음식점에 게시된 메뉴. /뉴시스

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3%, 소금이 20.9% 상승했다. 또 당면(10.2%) 파스타면(13.5%), 초콜릿(13.9%), 사탕(10.3%), 아이스크림(10.9%), 잼(12.9%), 수프(14.9%), 차(12.4%)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가뭄과 엘니뇨 등 이상기후 탓에 설탕의 주요 산지 인도·태국 등지에서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가공식품 물가는 2022년 12월

10.0%까지 치솟은 뒤 서서히 안정세를 찾은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5.1%에서 12월 4.2%, 올해 1월 3.2%에 이어 지난달에는 1.9%까지 둔화했다. 그럼에도, 가공식품을 구성하는 73개 세부 품목 중 47개 물가가 1년 전보다 상승했다. 이 중 28개 품목은 전체 평균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수산물의 경우, 농산물에 비해 오름폭이 크지 않았으나 오징어의 경우 동해 어획량 감소 여파로 상승률이 매일

10%를 넘고 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를 구성하는 품목별로 가격 편차가 두드러지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잇따라 식품 기업들을 만나 물가 안정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최근 CJ제일제당과 농심 등 19개 주요 식품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 차관은 “가공식품을 포함해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 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물가는 민생의 핵심이고, 물가가 높을 경우 국민들 입장에서 다른 민생정책의 체감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 문제에 있어 모든 직원이 긴장감을 가지고 ‘물가지킴이’가 된다는 각오로 임해야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근로복지공단

### 직영어린이집·유치원 대대적 안전관리 강화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정부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발맞춰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기준 강화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18일 전국 직영 어린이집 37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관리기준 준수, 친환경 시설강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 어린이용품 관리, 교육·홍보 활성화 등 9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실무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인건 등 어린이집 8개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고, 2023년에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어린이집 22개소 중 진해, 남동, 군산, 제주 어린이집 4개소에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료 시공 공사를 마쳤다.

올해는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 약 66억 원의 공사비 예산을 확보, 천안, 포항, 고양, 울산 어린이집에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료 시공, 화재확산방지구조적용 공법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 완료한 근로복지공단 직영 진해어린이집 전경. /근로복지공단

# 중앙행심위, ‘악성 행정심판’ 1만건... 청구인 형사 고소

특정인에 지속적 비난·욕설 담아  
사건처리 우편료만 7200만원 달해  
“손해배상 소송제기 방안 검토 계획”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해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 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

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 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A 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이를 보

호하기 위해 A 씨를 형사 고소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맞춤형 농지지원 등 청년농업인 확대

농어촌공사, 안정적 영농 정착 도와  
선임대-후매도사업·스마트팜 계획

한국농어촌공사가 18일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 농업의 미래 성장 핵심 키워드를 ‘청년’으로 두고 기존의 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선임대-후매도사업(82억 원→171억 원)을 비롯해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사업(54억 원→300억 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45억 원→60억 원) 등이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이 농지를 장기 임차한 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구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은 활용도 낮은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농업인이 시설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용수로와 배수

로 등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이란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한 농지에 환경 제어시설,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등을 갖춘 연동형 비닐온실을 설치한 스마트팜이다.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청년 농업인, 농업인 단체 등이 함께하는 ‘청년 농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그간 청년세대의 농업유입 확대와 육성에 중점을 두고 농지은행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 지원을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농지매매·임대방식을 다양화한 신규사업 발굴했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청년 농업인 6678명의 혜택을 지원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 피아노 업계 1위 영창, 공정위 과징금 1.6억

대리점에 할인경쟁 말라 강요

디지털피아노 업계 1위 HDC영창이 판매 대리점에 일정 가격 이하 판매를 막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8일 HDC영창이 디지털 피아노 판매 대리점들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신디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2019년 5월~2022년 4월 사이 최소 5차례에 걸쳐 이를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 중단(15일~3개월간)하겠다는 벌칙 규정

도 포함됐다. 영창은 이후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 총 289차례에 걸쳐 실제로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자, 2021년 영창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 판매가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더 강화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며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창은 국내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 1위 사업자(2022년 상

/세종=한용수 기자

## 국립환경과학원

### 폐기물 관련 연구 ‘맞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폐기물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은 오는 19일 일본 이바라키현 쓰쿠바에 위치한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에서 열리며, 폐기물 분야 현안 해결과 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정보교류와 관련한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행사 직후에는 양국의 폐기물 관련 연구 현황과 주요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 세미나가 개최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의 에너지화 등 공동 연구 주제 발굴 △전문가 상호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협력 △폐기물 처리 기술 공유 등의 폐기물 분야 연구 수행에 대한 협력 등이라고 우리 측은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또 오는 7월 영국 워릭대에서 개최되는 ‘유럽-한국과학기술학술회의’에 참가해 한국-프랑스 공동 발표를 진행하고 양국의 폐기물 재활용 분야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